

GYEONGNAM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vol. 30



www.gnmecenat.or.kr

김성수 <응비>

목태캔버스 위 옷칠, 나전
240 × 240cm 2015

올해로 옷칠 입문 70주년을 맞는 김성수
통영옷칠미술관장은 전통 옷칠의 특질과
정체성에 시대감각을 가미하여 옷칠을
세계화 하는 현대 옷칠예술의 선구자다.
수평선을 넘어 우아하게 솟아오르는 봉황의
모습, 고도의 세밀함과 영롱함. 천연의 빛과
형태가 생명의 빛으로 피어나는 모습이다.



발행인 황윤철
발행일 2021. 2. 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 055. 285. 5611
편집인 강신철
진 행 손수나 강세영
기획·디자인 오션 커뮤니케이션즈 / 055. 296. 4995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vol. 30

CONTENTS

메세나칼럼	02	예술의 온라인 대화법, 그것이 바꾸어놓을 지형은?
스페셜테마	06	디지털 기술과 만나 오감을 확장하는 이 시대의 예술
아름다운 동행	10	메세나로 맺은 인연, 함께 걸어온 6년의 동행 - (주)다우링에너지 ×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무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후원 - 화성G&I(주) ×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메세나인터뷰	18	옷칠 인생 70주년 - 통영옷칠미술관 김성수 관장을 만나다
	22	동서미술상 30주년 기념 - 영원한 낭만파 송인식 관장을추모하며
포토포엠	26	로키산맥, 캐나다 켈거리 by 김정민 작가
문화공간	28	복합문화공간 공간의 벽 허물고, 다양성의 날개 달고
메세나소식	32	2020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34	2020 경남메세나대회
	40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재인증
	42	문화나눔사업
인조이컬처	44	게이츠헤드, 예술로 도시를 살리다 - 폐광 마을에서 캐넌 예술이라는 보석
특별기고	46	경남메세나 영재가 만난 예술 세계 - 독일 문학이 음악사에 미친 영향

※ 경남메세나지 30호의 모든 취재 및 인터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rt

X

Online

예술의 온라인 대화법 그것이 바꾸어놓을 지형은?

박 신 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익숙해진 온라인 소통, 온택트 일상?

코로나19가 해를 넘기면서 온라인은 어느 순간 익숙한 소통방식이 되었다. 필자도 지난 해 말에 학과 중강 파티와 지인들과의 망년회를 줌으로 진행한 바 있다. 강의와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이미 당연한 방식이 되었고, 이제는 사적인 만남조차도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데 별다른 거부감이 없는 것 같다. 아예 만나지 못해 소식도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 마음이 들어서일까. 이런 풍경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으니, 참으로 세상일은 알 수 없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속에서 5인 이상 모임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당연히 공연장과 전시장도 다시 휴관으로 돌입했다. 돌이켜보면 2020년 상반기는 온라인을 통해 문화예술 접근성을 시도하려고 여러 문화예술 기관들이 애를 많이 썼다. 처음에는 반발도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공연예술의 현장성과 경험적 요소를 온라인이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의견, 미술작품의 원본성(originality)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논리가 먼저 앞섰다. 게다가 영상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나, 영상물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그대로 자본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예술가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점차로 온라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으로 확산되었고,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온라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이제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대해 보조재 개념으로 간주해온 것이 사실이다.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놓고, 필요할 경우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오프라인과는 다른 독자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더욱 소극적인 대응의 연속이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관건은 온라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강점이 있고,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라도 접근이 용이하며, 노출빈도 역시 무한하다. 게다가 SNS나 유튜브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개입과 참여가 가능해 콘텐츠에 대한 평가와 확산을 이용자들이 주도할 수 있으며, 모든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의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접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나아가 문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도 고려 대상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술 창작과 향유의 개념을 바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예술, 누구나 예술가

무엇보다도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온라인의 속성은 봉쇄와 격리 상황에서 오히려 최대치를 보여주었다. 유튜브를 통해 조성진을 비롯한 유명 연주자들의 무료 공연이 제공되었고, 전 세계인들이 접속하였다. 유튜브를 통한 클래식 음악의 노출은 전례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객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였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영상물이지만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영상물로만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베를린 필하모니의 디지털 콘서트홀과 영화관에서 보는 오페라 등으로 관객층이 형성되었고, 그 가운데는 온·오프라인을 모두 섭렵하는 사람도, 온라인만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을 접하는 방식이 온·오프라인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가 된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정부 단위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어디서나 접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제일 먼저 제공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31일부터 '집콕 문화생활'이라는 별칭으로 문화포털에 통합 안내 페이지를 개설해 국공립 단체 온라인 공연·전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 문화부는 3월 18일(코로나 격리령 선언 16일) '집에서문화'(#culturecheznous)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프랑스 전역에 존재하는 500여 개의 기관 및 단체,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700개 이상의 단일 가상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1 ____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집콕문화생활' 문화포털 ©문화체육관광부
2 ____ 프랑스 문화부 '#집에서문화'(#culturecheznous) 웹사이트

다른 한편 네이버를 통한 공연 및 예술 콘텐츠의 온라인 제공 역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네이버 공연 라이브’를 통해 선보인 공연은 2019년 대비 7.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해진 관람료가 아닌 이용자의 지불 의사에 따라 후원하면서 공연을 감상하는 ‘후원 라이브 모델’ 서비스도 호응이 높다. 게다가 카메라 워크를 통해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촬영 각도가 제공되면서 감상 포인트가 달라지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기획과 연출 단위에서도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원을 독려하면서도 유료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제 온라인 향유 방식은 자리를 잡게 되리라 전망하는 것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 누구라도 예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이라 하겠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누구라도 격리된 상황에서 집에서, 일상 공간에서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냈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 자발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베란다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만나 합창을 하거나,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며 SNS로 공유하는 활동들은 놀라운 풍경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즉 누구나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 그리고 창작과 향유의 경계가 없어지는 지점일 것이다.

참여, 상호작용, 연결, 연대

창작과 향유의 경계가 없어지는 사례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예술과 격리 사이’(tussen kunst en quarantaine) 챌린지일 것이다. 명화 패러디로 불리기도 하는 이것은 네덜란드 출신 인스타그램어가 제안한 것으로, “집에 있으면서 위료가 필요한 모든 이를 위한 홈메이드 예술”이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챌린지는 각자가 패러디할 작품을 고르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미국의 게티미술관에서도 트위터를 이용하여 집에서 명작 재현을 제안하는 등 더욱 확산되었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서 결국 온라인 소통의 효과는 일종의 연대적 의미를 만들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코로나는 예술을 통해 새롭게 해석되고 기록되어야 할 소재이자 주제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에 사는 세 명의 크리에이터가 만든 ‘코로나 미술관’(Covid Art Museum)은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다. 2020년 3월 19일 스페인 최초 격리 시기에 탄생한 이 미술관은 격리와 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온라인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모두의 가상미술관인 셈이다. 이 계정을 만들면서 이들은 “인류 역사상 독특한 순간의 창의적인 기억”이 되기를 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미술관에서도 ‘코로나 컬렉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격리 기간에 사람들이 겪었던 경험과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리게 하고, 이를 근거로 전시회와 출판물을 기획하려는 것이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15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유하는 틱톡(TikTok)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카라바조 그림 안의 매두사가 등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돌로 만들어버리거나, <난쟁이 모르간테 초상>의 난쟁이가 미술관을 배회하는 등 유머러스한 분위기에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고 있다. 틱톡 계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예술은 지루하지 않고, 예술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예술의 일상적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다.

1 ____ ‘예술과 격리 사이’(tussen kunst en quarantaine) 챌린지 ©omroepwest.nl

2 ____ 오스트리아 비엔나 미술관의 ‘코로나 컬렉션 프로젝트’ ©Kunsthistorisches Museum

3 ____ 로열오페라하우스의 온라인협주 유튜브 영상 갈무리 화면 ©Royal Opera House



예술의 일상적 접근은 예술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예술가들 역시 집에서 머물며 온라인을 통해 창작활동을 지속하였다.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NDT) 소속 무용가들은 각자의 집을 무대로 전체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3분짜리 숏댄스 필름 영상을 제작하였다(2020. 4. 8). 그들은 격리 상황에서 서로의 작업을 격려하고, 온라인의 시공간적 연결성을 작품 요소로 녹여낸 것이다. 영국의 로열오페라하우스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의료진(NHS)을 위해 360도 온라인 공간 안에서 협연하는 55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였다(2020. 5. 8). 연주자들은 각자의 집에 갇혀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하나가 되어 연대의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온라인 예술 콘텐츠의 새로운 전망

온라인은 사실 많은 연주자들로 하여금 무대라는 공간을 의도치 않게 벗어나 일상 공간을 무대로 확장해 가도록 만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왜 무대에서만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일찍이 20세기 중반, 현대무용의 선구자 머스 커닝엄(Merce Cunningham)은 “누구나 무용수가 될 수 있고, 어디나 극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결국 디지털 기술이 이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준 셈이 되었다. ‘첼로덱’이 기차역과 고옥을 배경으로 연주하고, ‘이날치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관광도시를 배경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광주 5.18 유적지를 투어링(민주길, 오월을 듣다)하면서 연주가 이어지기도 한다. 영국의 램버트댄스컴퍼니(Rambert Dance Company)는 18명의 무용수가 빌딩 5층에서 춤을 추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예술 창작과 향유 방식에서 온라인을 이전처럼 오프라인에 대한 보조 개념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온라인의 속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미 오프라인의 경험과는 다른 차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연주 전체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거나, 공연 전체를 영상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일견 대체제적 성격을 갖겠지만, 다양한 카메라 워크를 통해 그 효과는 달리 주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술 활동 자체를 온·오프라인 병행 구도로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온라인 예술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소통의 의미를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4 ____ 기차역을 배경으로 연주하는 ‘첼로덱’ 유튜브 영상 갈무리 화면 ©CelloDeck

5 ____ ‘이날치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유튜브 영상 갈무리 화면 ©한국관광공사TV

어쩌면 지금의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고려한다면, 예술 분야에 바야흐로 콘텐츠 시대가 열린 것으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 이를 위해 콘텐츠의 유형과 매체 활용은 매우 다양하게 펼쳐질 것 같다. 홍보 기능에서부터 라이브 공연, 주제별 접근을 통한 기획에 이르기까지 상영시간이나 연출 방식, 스토리 구성과 전개방식, 그리고 어법 등도 다양해질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SNS의 속성이 그런 것처럼, 이용자가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참여와 상호작용, 연결을 주요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이용자 데이터를 통한 행태분석과 콘텐츠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도 필수요소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시각예술 분야를 소재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를 들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2018년에 시작한 <널 위한 문화예술>은 유튜브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1boon, 네이버 포스트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2년 만에 유튜브 기준 19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예술의 재미는 예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라는 명제 아래, 콘텐츠 컨셉을 취향 발견 콘텐츠와 예술 지식 콘텐츠로 접근하고 있다. 해설형이 아닌 하나의 이슈를 중심에 둔 이야기 전개와 스토리텔링 기법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등의 방식이 시청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는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행태와 성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식 또한 유리한 지점이라 하겠다. 앞서 거론한 여러 사례 외에 <널 위한 문화예술>은 예술 지식에 대한 고급한 모델로서 타겟이 분명하면서도 지속적인 이용자층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디지털 기술과 만나 오감을 확장하는 이 시대의 예술

버라이어티 미디어그룹 앰버린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정혜리

예술이 기술을 만났다. 아니, 기술이 예술을 만났다. 예술과 기술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며 상호 발전 중이다. 특히, ICT 기반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예술의 표현 영역을 무한으로 넓히며 아주 특별한 비주얼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다.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는 이 시대의 예술을 살펴보자.



프로젝션 맵핑 × 클래식 · 미술 · 미디어아트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이란 특정한 공간이나 오브제의 표면을 캔버스로 활용, 빛을 이용한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주어서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표현 기법이다. 다른 어떤 물리적 파괴가 없이 '빛'만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익숙한 대상에 새로운 가상공간을 만들어내어 신선함을 줄 수 있고, 마음껏 미디어를 펼치다가도 언제든지 원래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2019년 버라이어티 미디어그룹 앰버린이 선보인 이머시브 미디어아트 콘서트 <클림트&뮤직 콘서트>는 프로젝트 맵핑을 활용한 융복합 공연이다. 황금빛 색채의 거장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클래식 라이브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음악과 어울리는 클림트의 미술 작품들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하여 공연장에 세워진 벽면과 무대 바닥에 투사했다. 익숙한 전통 공연장을 순식간에 미술관, 클림트의 작품 속, 그리고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 변화시켜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했다.

미디어 파사드 × 현대무용

미디어 파사드(Media Façade)는 '미디어(media)'와 건축물 외벽부의 중심을 뜻하는 프랑스어 '파사드(façade)'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하고 벽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빛과 영상으로 이루어진 미디어 디스플레이가 건물 외관을 다채롭게 장식함으로써 사람들은 매일 일상 속에서 지나치던 건물을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대형 건축물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는 기존의 예술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로 변환시켜 삭막한 도심 공간에 색과 개성을 입히는 공공예술(Public Art)의 기능도 한다.

2018년 서울 세종문화회관 외벽에는 기념비적인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고유의 가치를 유지해 온 BMW 7 시리즈와 세종문화회관이 만나 탄생 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기획과 안무를 맡은 현대무용가 차진엽은 BMW 7시리즈가 전달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현대무용으로 해석해 7시리즈가 가진 럭셔리한 이미지를 작품으로 승화시켰고 작품은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상영되었다. 전통과 가치를 지켜가며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두 브랜드의 상징성과 이미지가 극적으로 결합한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평이 쏟아졌다.

1 & 2 ____ 앰버린, <클림트 & 뮤직 콘서트>(2019) ©Amberlin

3 & 4 ____ BMW 7 시리즈 출시 40주년 기념 미디어 파사드(2018) ©BMW 코리아



홀로그램 × K-pop

홀로그램(Hologram)은 ‘완전함’, ‘전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홀로(holos)와 ‘정보’, ‘메시지’를 뜻하는 그램(gramma)의 합성어로 빛을 완벽하게 복제하여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마치 눈앞에 대상이 있는 것처럼 생생한 이미지를 형성해 주는 기술이다. 2016년 2월 도쿄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이를 동안 1만 5천 명의 관객이 모였다. 콘서트의 주인공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K-Pop 가수 김재중이었다. 입대 전 촬영을 마치고 1년간 후반 작업을 거쳐 2년 만에 탄생한 홀로그램 콘서트. 군 복무 기간 동안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가수를 홀로그램 콘서트를 통해 극적으로 만난 일본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한 공연으로 가수의 공백기를 채우는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는 한류, K-pop 시장에서 이전에 없던 성공적인 팬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다.

잠시 공백기를 가지는 가수가 아니라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스타를 홀로그램으로 탄생시킨 사례도 있다. 바로 얼마 전 12월 엠넷에서 방송한 <에이아이(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에서는 AI 음성 인식과 홀로그램을 통해 혼성그룹 거북이의 터틀맨(故 임성훈)과 가수 故 김현식을 복원한 무대를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21 NEW YEAR'S EVE LIVE’에서 故 신태철을 홀로그램으로 복원하여 감동의 합동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진일보한 인공지능 기술과 그래픽 기술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팬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VR - 가상현실 × 미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인공 기술로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구현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이나 상황, 혹은 기술을 뜻한다. 현실 세계를 완벽히 차단한 채 100%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의 환경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실제와 유사한 시공간적 체험을 제공하고, 상호 작용을 가능케 해 사용자의 경험을 증폭시킨다.

2019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쇼케이스에서는 세계 최초로 여러 명의 관객이 동시 접속해 작가가 만든 가상 세계를 산책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첨단 가상현실 작품이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다. <Peach Garden>은 권하윤 작가가 안건의 ‘몽유도원도’에서 영감을 얻어 구성한 VR 미술 작품이다. VR 헤드셋을 착용한 관객들은 가상현실 세계에 구성된 아름답고 몽환적인 공간에 입장하여 직접 자유롭게 거닐며 작품을 체험했다. 시각적 요소는 물론 청각적 요소까지 결합시켜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1 ____ 김재중 홀로그램 콘서트(2016) ©씨제스엔터테인먼트

2 ____ <에이아이(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번>(2020) ©M.net

3 ____ 권하윤, <Peach Garden>(2019) ©파라다이스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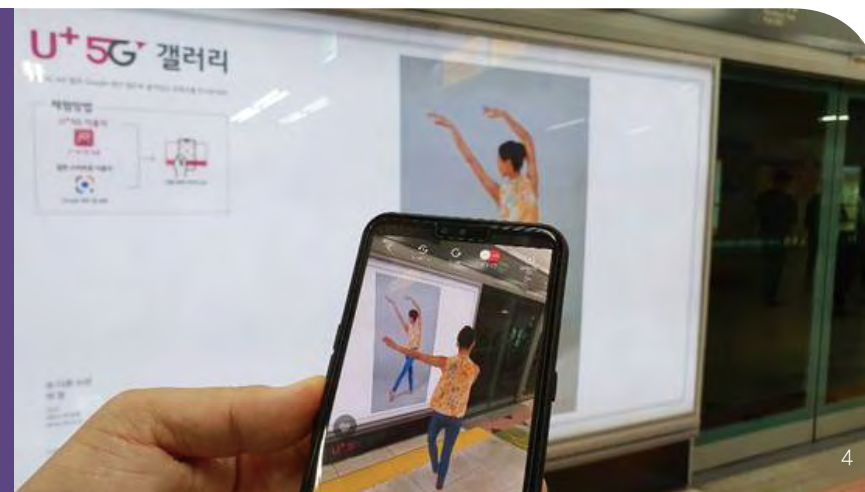


AR - 증강현실 × 무용·미술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모습에 3차원 가상 이미지나 그래픽을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현실과 가상의 콘텐츠가 혼합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미 마케팅·유통·패션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거대 유통기업 아마존,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는 카메라로 촬영한 실제 주거 공간에 가구나 가전 등 공간과의 조화가 중요한 제품들을 가상으로 배치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가을, 공덕역에 U+5G 갤러리가 열렸다. 지하철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작품을 스마트폰 AR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비추면 화면에 가상의 콘텐츠들이 겹쳐 보이는 형식이었다. 고요한 풍경 작품을 가만히 비추면 화면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사진 속 멈춰있던 발레리나가 살아 움직이며 ‘춘앵전’ 공연을 펼쳤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 파고든 문화예술은 AR 기술을 만나 승객을 한순간에 관객으로 전환시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공간이 바로 공연장 1열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의 경험과 유사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몰입감을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등장했다. 나아가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하는 비주얼 콘텐츠 제작이 가속화되고 있다.



XR - 확장현실 × K-pop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은 앞서 소개한 홀로그램, VR, AR, MR,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미지의 신기술까지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XR기술은 사용자의 오감을 확장하여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아바타와 같은 가상 오브제를 매개로 상호작용도 가능케 한다. 그 덕분에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환경에 색다른 즐거움과 재미를 더한다.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1월, MBC와 네이버 NOW는 XR 라이브 콘서트 <On the MOVE>를 공동 제작했다. 별도의 장치 없이 벽면과 바닥면으로만 구성된 심플한 LED 무대에 XR기술을 적용하여 화려한 배경과 오브제를 채워 넣었다. 콘서트가 진행되는 45분 동안 무대는 웹툰의 한 장면, 바닷속 신전이 되었다가 관광명소로 변해 시청자들과 랜선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다양하게 확장하고 변환이 가능한 XR기술로 기존의 무대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무대를 선보인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한 XR의 장점을 활용하여 관객과 실시간 소통으로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예술을 만난 기술은 깊이를 더해가고, 기술을 만난 예술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색다른 경험과 몰입감 그리고 즐거움을 선사하며 우리 삶에 파고든 기술을 만난 예술, 예술을 만난 기술의 미래가 기대된다.

4 ____ U+5G 갤러리, 신재현×무용수들 <리슨 투 더 댄스> (2019) ©LG U+

5 ____ MBC×네이버 NOW XR 라이브 콘서트 <On the MOVE> (2020) ©Amberin





메세나로 맺은 인연 함께 걸어온 6년의 동행



(주)다우링에너지
×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무리 예술이 힘들다 하지만 지난해만큼 힘든 적이 있었을까. 갑자기 온 세상이 멈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기업은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예술단체는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겼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주)다우링에너지 이종호 대표와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광현 지휘자가 마주 앉았다. 웃는 모습이 무척 닮은 걸 보니 하는 일도, 살아온 세월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서 어느새 서로에게 맞춰졌나 보다.

전시회가 펼쳐지는 갤러리 안, 이 전시는 다른 전시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벽면에는 작품이 전시돼 있고 관람객들은 전시를 보면서 감미로운 음악도 들을 수 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원이 아니다.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악기를 챙겨와 갤러리 안에 작은 무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 것은 (주)다우링에너지 이종호 대표와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광현 지휘자의 끈끈한 관계 덕분이다. 이 대표는 당시 매칭펀드로 후원하고 있던 그림사랑회 전시회에 또 다른 매칭펀드 후원단체인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부탁했다. 이 대표의 문화예술 후원으로 성사된 아름다운 콜라보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사실 저도 부탁하기 쉽지는 않았는데,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광현 지휘자께서 흔쾌히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체면이 좀 썩었지요. 그림 보러 오신 분들이 좋은 음악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전시회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대표의 연주 요청을 받은 한광현 지휘자는 기꺼이 달려와 연주를 펼치며 전시의 품격을 한껏 끌어올렸다.

“저희야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바기만 했는데 저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공연하기 편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관객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연주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메세나가 맺어준 인연

두 단체의 인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5년, 한광현 지휘자는 음악의 즐거움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김해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대관에서부터 악기 대여, 연주자 출연료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도 예술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비까지 털어가며 연주를 했고 더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늘 예술가의 의지를 꺾는 장애물이었다.

바로 그때, 다우링에너지 이종호 대표를 만난다. 경남메세나협회는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대표를 소개해 준 것이다.

“그때 대표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희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표님께서 매칭펀드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어려움 없이 연주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단체를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덕분에 어려운 길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활동하면서 예술인들이 작품을 무대에 올릴 때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년 김해지역 예술단체를 후원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15년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연을 맺었다. 그때의 다짐과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벌써 6년째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무대나 연주도 무척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한광현 지휘자가 타고난 사교성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까지 결연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이 함께 행복하니, 이것이야말로 매칭펀드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음악이 주는 싹표, 후원이 주는 느낌표!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다우링에너지의 후원에 힘입어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받은 관심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대 위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음악은 삶에 있어서 휴식과도 같아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여러분께 ‘음악이 주는 싹표’를 전하고 싶습니다.”

다우링에너지에게 음악은 ‘후원이 주는 느낌표’다. 후원을 할 때마다 악기를 직접 연주하지는 않아도 함께 무대를 만드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대에서 후원단체의 공연을 볼 때면 다른 공연을 볼 때보다 감동도 크다. 무대 위 주인공들이 공연을 완성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만든 멋진 공연에 작은 도움이 됐다는 뿌듯함은 다시 매칭펀드를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후원이라는 것은 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에도 문화예술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단체들이 건강한 예술단체로 성장하고, 시민들이 마음껏 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대 밖에서, 무대 위에서 ‘행복한 사람’

이 대표는 경남의 문화예술이 일상에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경남 문화예술의 격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기업이 힘든 상황에서도 더 힘들어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기업을 통해 경제에 이바지하듯 무대를 만들어 치유와 감동을 전하는 예술인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특히 지금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에게 치유와 감동을 전하는 예술의 힘이 필요하다.

“저도 공연을 자주 보는데, 공연을 볼 때마다 정말 새롭거든요. 수많은 연습을 거쳐 완벽한 무대를 완성하기까지 무한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서일까.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무대 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던히 노력 중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관객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소통의 공간을 옮겨 비대면으로나마 음악이 주는 감동을 나누고자 노력해 왔다.

“요즘 기업들도 많이 힘들 텐데 변함없이 후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연주자들은 무대 위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다우링에너지의 후원 덕분에 연주에만 몰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지휘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대표가 웃으며 말한다.

“정말요? 저희는 후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둘이 함께 행복하니, 이것이야말로 매칭펀드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1 —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광현 지휘자와 (좌)다우링에너지 이종호 대표

좋은 인연 계속 이어지길

예술 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곳곳이 예술가의 길을 걷는 한광현 지휘자를 보며 이 대표는 초심은 지키되 자존심은 버리라고 조언한다. 무대 위에서는 당연히 예술가로서 자존심을 내세워야 하지만,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예술가의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실 매칭펀드 결연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자주 보고 함께 웃고, 별것 아닌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인연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좋은 인연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언젠가 술 한 잔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함께하자고 다짐하며 뜻깊은 만남을 마무리했다.

하는 일은 달라도 같은 목표를 위해 달려왔던 두 사람은 이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 사람은 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며 더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경영자로,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도의원으로 바쁜 하루를 살고 있다. 다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사람의 시너지로 만들어진 멋진 공연이 다시 관객의 박수를 듬뿍 받으며 무대에 올려질 날을 기대해 본다.

무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후원 아낌없는 후원으로 지역 최고의 청소년오케스트라가 되다



화성G&I(주)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1 ____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과 함께 성장한 바이올리니스트 태예원 학생(가운데)과 함께 2018 경남메세나대상 예술영재 선정을 축하하며



무대 위 가득한 긴장감을 깨고 연주가 시작됐다. 이 한 곡 안에는 단원 한명 한명의 고된 노력의 과정이 있었고, 함께 모여 연습한 시간이 만들어낸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우리는 악기가 만들어내는 울림에 더해 그들이 뿜어내는 울림을 느끼려 공연장을 찾는 것인지도 모른다.

연주자의 노력 뒤에 그들을 묵묵하게 응원해 준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케스트라의 첫 음을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도 마찬가지다. 벌써 13년째 변함없이 후원해 준 화성G&I 덕분에 그들은 무대 위에서 훌륭한 울림을 완성해낼 수 있었다.

기업은 예술단체를 후원하고 예술단체는 수준 높은 공연과 예술 행위를 통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 이 아름다운 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의 일이다.

기업의 후원은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다. 때론 무성한 나뭇잎으로 그들을 만들고, 열매를 나눠 배부르게 하며, 몸통으로 뗏목을 만들어 세상 밖으로 떠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에 나무가 필요한 이유는 깨끗한 산소를 뿜어내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에게는 기업의 후원이야말로 그들을 마음껏 숨 쉬게 하는 산소 같은 존재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화성G&I의 후원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기업이 있다. 예술단체가 마음껏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후원기업, 바로 화성G&I다. 화성G&I 김원철 대표는 오래전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벌써 20년 가까이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2003년, 김 대표의 아내인 오희원 여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에게

선뜻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후 경남메세나협회가 출범하면서 화성G&I와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공식적인 후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호준 상임지휘자

“첫 인연부터 시작하자면 벌써 20년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연장을 찾아와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김원철 대표는 그저 사회를 위한 나눔의 의무 그리고 예술이 세상을 바꿔 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갖고 매칭펀드를 계속하고 있다.

김원철 대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념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길 적십자 봉사회 활동, 종교 시설 운영 단체 등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성장하고, 성장한 문화예술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

매칭펀드 결연을 맺은 지 13년째, 그동안 김원철 대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 해 왔던 것이 아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연장을 찾아 단원들을 격려하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의 감동을 즐기기도 했다. 형식적인 후원에 그치지 않고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두 단체가 끈끈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왔다.

지금까지 김 대표가 참석한 수많은 무대 중에서 어떤 공연이 기억에 남는지 물었다. 모든 공연이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복지시설을 찾아 ‘사랑나눔음악회’를 열었을 때, 그곳에 계신 분들이 연주를 들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 공연을 보던 한 소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어주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주도 좋았지만, 그 순간을 함께했던 분들의 행복한 웃음에 가슴이 뭉클할 정도였어요. 그때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순간이 동기부여가 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초청 장애인과 시민을 위한 나눔 음악회’가 펼쳐졌다. 평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초청했고, 화성G&I 직원과 가족들도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당시 연주를 봤던 직원의 자녀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후 학교에서 ‘장애인은 조금 다른 사람일 뿐, 더 위대할 수도 있다’는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좋은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껏 연습하고 마음껏 연주하다

김 대표가 이렇게 오랫동안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을 후원한 데는 문화예술을 사랑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김호준 상임지휘자의 열정과 리더십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김호준 지휘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어 벌써 30년째 지역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든든한 연주단체로 거듭나게 했다.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은 화성G&I의 후원 덕분에 매년 유명 음악인 초청 정기연주회, 차세대 유명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음악캠프 등을 운영하며 창원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유명 음악인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지역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자선음악회로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실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민간 오케스트라다 보니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마련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연 후부터는 마음껏 연습하고 마음껏 연주하면서 질적, 양적으로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지난해에는 창단 30주년 기념으로 세계적 반도네온 연주자인 JP조프레를 초청해 멋진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칭펀드 후원의 힘이고 그 증거가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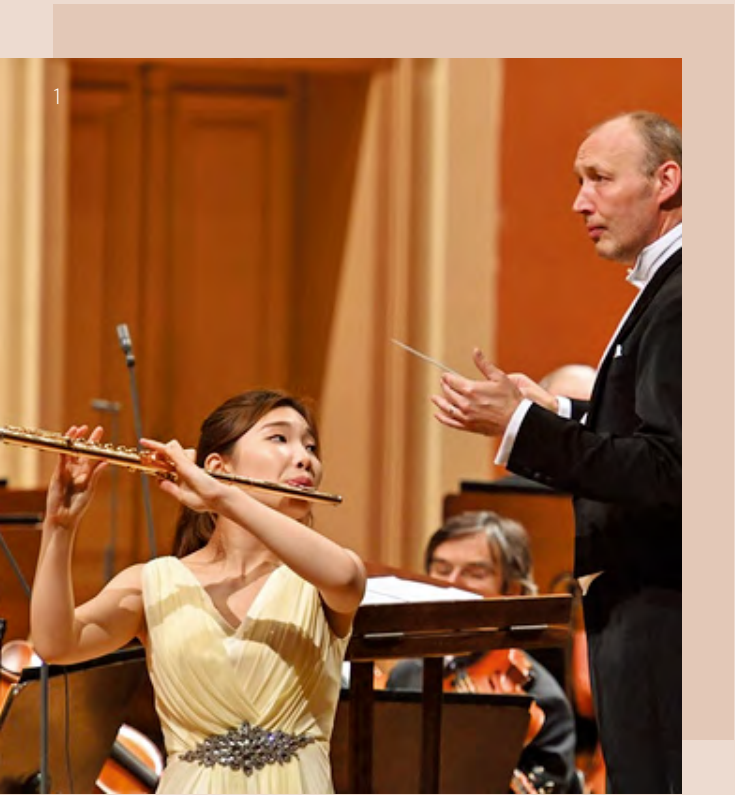
예술이 바꾼 회사

강산이 바뀌는 동안 한 예술단체와 결연을 맺어왔다는 것은 이미 예술단체와 기업이 가족과 다름없다는 의미가 된다. 후원 기업에 좋은 일이 있으면 단체도 함께 기뻐하고, 예술단체에 좋은 공연이 있으면 후원기업 직원들을 가장 먼저 초청한다. 벌써 10년 넘게 이어진 인연 덕분에 화성G&I 직원과 직원 가족들은 좋은 공연을 즐길 기회가 많아졌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는 무대를 경험하다 보니, 일부러 강조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경영에 문화를 접목하는 ‘문화경영’의 실천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잿빛 공장 안, 몸은 기계 혹은 문서와 씨름을 하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울려 퍼진다. 기업이 예술단체를 후원하고 받은 보상, 금액으로는 결코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보답이 아닐 수 없다.

“마음껏 연습하고 마음껏 연주하면서
좋은 무대를 선보일 수 있었어요”

1 ____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에서 음악을 시작한 플루티스트 유채연(2013 경남예술제나대상 예술영재)양은 지난 2019년 제기회 프라하의 봄 콩쿠르 플루트 부문에서 1위로 입상하였다.



2 ____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김호준 상임지휘자와 화성G&I(주) 김원철 대표

Interview

옷칠 인생 70주년

통영옷칠미술관
김성수 관장



한국 현대 옷칠 예술의 선구자라는 무게감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한국 전통미술의 한 장르인 나전칠기를 회화로 발전시킨 노장(老將) 김성수 통영옷칠미술관장을 만났다.

선구자(先驅者).

그 위풍당당한 호칭은 그저 만들어진 수식어가 아니라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기술적 도제공을 예술 장인으로 승화시키는데 혼신을 쏟아부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진행형 동사에 대한 훈장임이 틀림이 없다.

옷칠인생

1951년 중학교를 마친 선생은 집안 어른신의 손에 이끌려 통영의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1기생이 되었다. 통영시 항남동에 위치한 양성소에는 일본 황실재단 기능공으로 세계장식공예박람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김봉룡 당시 부소장을 비롯한 당대의 걸출한 유학과 예술인들이 교수진이었는데 공예가 유강렬이 주임강사였고 이듬해에는 화가 이중섭이 데생을 가르쳤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장인을 꿈꾸었을 것이 명백하다.

1 ____ 경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현재 모습(국가등록문화재 제 801호)



자개와 칠을 배우는 기술 강습소라 생각했는데 데생, 디자인, 제도 등 현대미술의 기초를 다졌다. 2년 과정을 수료하고 고등학교에 진학 하였으나 의식의 흐름은 인문학보다는 미술로 흐르고 있음을 자각하고 스승의 배려에 힘입어 낮에는 통영 칠기사에서 기량을 익히고 야간에는 학업에 전념하는 이른바 주경야독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56년 대학 진학을 위해 상경하였으나 강사진 전원이 상경하여 후진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봉룡 선생의 권유로 귀향하여 양성소에서 후배 교육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1962년 창작활동을 통해 실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상경하였다. 이듬해 국전에 출품하여 공예부 최고상을 수상하였고 내리 4년 연속으로 특선을 차지하면서 1966년 마침내 추천작가의 반열에 오르며 홍익대학교 강사로 위촉되었다.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도 두려움이 앞섰다. 아직 본인이 대학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최고의 재능을 예비한 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겸손이 채찍이 된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서라벌 예술대학 회화과에 진학하여 배움과 가르침의 길을 동시에 걷게 되었다. 그때 그는 가르침과 배움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신조로 삼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배운 것을 오롯이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르침의 가치라 여겼기 때문에 참됨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의 거짓도 보태지 않는 가르침이 최선이라 다짐했다. 철저한 겸손 그 자체였다.

이후 숙명여대에서 정년을 맞이까지 선생은 우리 전통공예의 예술적 가치를 공식화하기 위하여 학문적 토대 위에 창의성을 찾아내는 노력을 이어나갔다. 2002년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 <옷칠회화展>을 개최하면서 ‘옷칠(ottchil)’을 고유명사화하고, 옷칠 회화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완성시켰다. 장식 공예품의 위치를 캔버스라는 평면으로 옮기면서 회화적 요소를 나전칠기 기법에 접목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니 선구자라는 호칭은 선생에게 딱 알맞은 찬사다.

국제적 이목이 쏠리면서 옷칠에 대한 관심은 옷칠의 성지가 어디인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고 선생은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해야만 했다. 이에 대한 고뇌는 선생의 결심을 재촉했고 정년과 동시에 퇴직금과 전 재산을 털어 미술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선생이 옷칠을 시작했던 양성소는 통영시의 노력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801호로 지정되었고 통영의 용남해안로에는 통영옷칠미술관이 미래 천년을 펼쳐나갈 교육의 장으로 우뚝 서있다.



“옷칠을 고집한 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작품을 완성하는 개인의 예술혼과 뚜렷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소명의식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공통분모는 있다 할지라도 벽이 느껴지는 한계의 극복은 많은 외로움과 도전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이 둘을 함께 수용하면서 묵묵히 오늘을 지켜내고 있는 선생의 옷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서 시작된 것이라 돌이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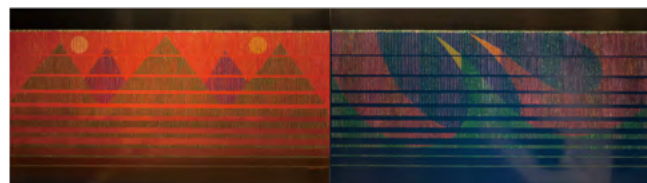
1973년 튀니지 정부의 요청으로 1년 6개월간 튀니지 공예청에서 나전칠기를 가르쳤다. 가르치기 위해 간 그곳에서 그는 오히려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졌노라 고백한다. 인구 540만의 국가에 공예청 생산 인원이 3천 명에 달한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에도 전통문양을 살리며 전통을 지켜내려는 정성 앞에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충격은 이어졌다. 선생을 초대한 튀니지 고위 인사가 한국에서 수집한 나전칠기 작품을 자랑하는 자리였다. 애지중지하는 소장품인 자개 찬합, 꽃병, 담배 케이스를 보며 자부심에 입꼬리를 올리는 것은 잠시였고 찬합의 뚜껑을 여는 그 순간 확 치닿는 카슈(합성 도료)의 냄새는 극도의 수치심에 몸서리치며 숨이 멎을 듯한 부끄러움에 이미 등은 식은땀에 젖어들었다. 그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정체성이 실용성에 묻혀 가짜를 양산한 것이라는 자책감에 잠을 설쳤다.

그날 이후 10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전통을 복원해야겠다는 자성의 울림을 스스로 삼키며 옷칠 되찾기 운동을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개념의 정립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선생은 창작과 미래를 여는 교육을 실천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전통미술에 대한 정체성의 정립을 고민했다. 그래서 정한 원칙이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그 과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먼저 선생 자신부터 과정(재료와 기법) 위에 현대(창의성)를 입히자고 주문했다.

“제 작품의 족보는 창원 다호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방형칠두(方形漆豆)> 입니다”

그의 작품은 기원전 2세기의 제작 과정을 유지·계승하면서 현대적 회화성을 살리는 것이기에 옷칠 고유의 색채가 자개의 빛을 천연의 물비늘로 반짝이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피어난다. 시간과의 싸움을 회화적 정서로 녹여내는 작품이기에 그 어느 장르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어쩌면 그래서 천연의 빛과 형태가 그대로 살아나는지도 모를 일이다.



“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에 대중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우리 장인들이 스스로 찾고 반성해야 합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을 내세워 합성 도료를 사용했으니 칠이라는 미술성을 접착의 기능성에 묻어버린 것이지요.” 스스로 가짜의 길을 택한 과오를 인정하고 뿌리라는 역사성을 도로 찾아와야 한다는 노장의 따끔한 충고가 우리 모두의 양심을 저격한다.

나전 옷칠에 입문한지 70년. 선생은 개인전 도록이 드물다. 그 이유는 김성수의 옷칠도 통영의 옷칠도 아닌 ‘대한민국의 옷칠 예술’을 모토로 복원과 계승을 위한 운동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한국화, 도예, 나전칠기, 염색. 이 모든 것들이 뿌리를 되찾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작업보다는 전통미술이 융합 상생하기를 늘 추구해왔다.

우리 모두의 과제

몽고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을 조판하고 그 경판을 보관한 합천 해인사.

왜적을 섬멸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이 12공방을 설치한 통영.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전통미술의 맥을 잇고자 설립한 나전칠기 기술 양성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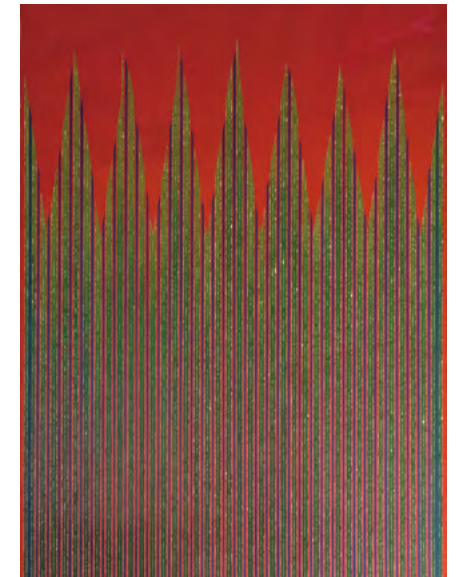
이들의 공통분모는 옷칠이고 경상남도이며 계승이다. 고대 신라에서도 옷칠 문화의 발전을 위해 칠전(漆典)을 두었고 그 맥은 조선의 건칠도감(乾漆都監) 12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나전칠기 기술 양성소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문화예술사업이다.

김성수 관장의 개인적 복원운동에 머물러서는 우리 후세에 전통 예술 혼을 잇기 위한 과제를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선생의 70년은 한국 현대 옷칠 미술 7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중의 관심이 격려가 되고 경상남도의 문화지원정책 역량이 응원이 되어 명실공히 자개 옷칠의 성지로 통영이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영원한 名匠

통영 바다의 윤슬이 손뼉 치며 전통미술을 수호하는 노장(老將) 김성수 관장을 한국 미술계의 이순신이라 칭송하는 듯하다. 아니. 85세의 영원한 명장(名匠)이다.

자개는 물비늘을 닮았다.



김성수 옷칠 예술역사 70년展

일시 2021년 10월 19일 - 10월 29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

Interview

동서미술상
30주년 기념

영원한 낭만파 송인식 관장을 추모하며



동서미술상 30주년 기념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3·15아트센터 전시장을 찾기로 했다. 설레는 발걸음.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방정맞은 나의 망상을 타하며 양덕동 IPA갤러리로 발길을 옮겼다. 20세기형 굴곡진 계단을 밟고 올라간 3층, 상을 제정한 故 송인식 동서화랑 관장의 추모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올해만 말아달라는 말에 발목 잡혀서 해마다 올해를 맞이하고 보낸다”는 사진작가 김관수의 푸념으로 포장된 신나는 자량이 호떡 안의 꿀처럼 단 맛으로 술술 흘러나온다. 동서미술상의 여제를 돌이켜보며 조현계(1회), 조경옥(7회), 김관수(19회), 조성제(22회)와 동서미술상의 내일을 그려보았다.

예향(藝鄉)이라 불리는 마산.

한국 전쟁으로 각 분야의 예인들이 마산을 거쳐 가거나 마산에 터를 잡았지만 그들의 창작물을 담아낼 그릇이 없었다. 끓어 오르는 사이펀(siphon)에서 걸러 내린 커피 한 잔을 놓고 그 향을 즐기며 담소하는 몇몇이 어른들의 놀이터 다방의 벽면을 발표의 벽으로 삼고 크고 작은 전시가 이어졌다. 전문성을 지닌 미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소신이었는지 1973년 오동동 한 길모퉁이에 故 송인식 선생은 ‘동서화랑’ 간판을 걸었다.

경남지역 최초의 화랑이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장르를 망라한 공간이라는 의미로 東西畫廊 이후로 중앙화단과 지역 작가들의 평가의 장으로써 또는 작품 감상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故 송인식 관장은 1990년 10월 경남의 미술인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마음을 전하는 동서미술상을 제정하고 1991년 첫 수상자를 선정했다. 故 송인식 관장이 사재를 출연하여 제정한 이 상은 경남의 미술인들에게 처음으로 ‘인정받음의 기쁨’을 알려주었다.

제1회 수상자라는 무게감은 제 삶의 물고를 돌려놓았습니다. 교직을 접고 후배 작가를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미술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어렵게 미술 공부를 했던 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매년 10명의 학생들을 무료로 지도하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했었지요. 그런데 수상 이후 10년, 상의 의미를 떠올릴 때마다 톡톡이 하는 작업은 작가로서의 책임이 걸려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업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장르가 수채화이기 때문에 번짐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화폭을 바닥에 눕히고 엎드려서 작업해야 합니다. 100호가 넘는 대작이라 할지라도 완성될 때까지 허리를 펴 수 없는 작업이지요. 그 고통도 감내하는 것이 작가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게 만든 것이 동서미술상의 무게이자 가치입니다. 올바른을 실천하는 자세를 모범으로 보이는 것이 수상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창작에 임합니다.

조현계 1회 수상자, 서양화





저에게 있어서 동서미술상은 인정(認定)이 주는 희열이자 책임감입니다. 첫 개인전을 김해에서 열고난 후 찾은 곳이 마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송관장님과의 인연으로 펼쳐졌습니다. 전시공간을 찾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저의 목마름을 풀어주셨죠. 아무런 조건 없이 대관을 허락하셨고 저는 마산에서 제 작품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은 화상(畫商)이 아닌 부모님 같은 존재입니다. 예술은 창작이라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 창작의 가치를 측정해 주는 이의 시각이 더해져야 작품은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력을 선생을 통해 얻었으니 제게는 부모나 다름없죠. 이후 수상자가 되면서 저는 자격을 갖춘 화가라는 자긍심이 생겼어요. 그러자 창작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지요. 상이 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저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작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인격체로서의 작가가 되어야 한다는 저만의 정체성을 다지게 만든 것이 동서미술상의 의미입니다.

조경옥 7회 수상자, 서양화



타계하시기 나흘 전 병상에 계신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23회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준비하는 단계였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김 작가가 행사를 챙겨줘야겠다” 딱 올해만 부탁하니 혹시라도 내가 가게 되면 동서미술상은 그대로 멈추고 화랑도 운영을 접으라 하셨습니다. 참 아픈 말씀이었지요. 그때 이미 자금이 다 소진된 상태였고 유산으로라도 남길 것이 없었기에 남은 사람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을 덜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이 저에게는 독려의 말로 다가왔습니다.

저와는 힘든 시간을 이겨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배려심마저도 유산으로 남아 저는 해마다 올해만 준비합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다고 할까요? 이 사진전도 사실 선생님께서 남겨두신 사진들이 아닙니다. 흔적을 지우라고 하셨고 다 버리고 가셨습니다만 생전에 행사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확대를 부탁하셨던 사진자료들이 사본으로나마 저장되어 있어서 그 옛날 명함 크기의 사진들을 이렇게 복원해 전시한 것입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다행이다”라고 하신故 박경리 선생의 말씀처럼 다 버리는 것을 실천에 옮기신 분인지라 남겨두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생님의 면면을 그대로 살려 모든 장르를 모으는 판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동(東)과 서(西)를 아우르는 동서였던 것처럼 경계 없이 예술의 고향을 동서의 이름을 붙여 장을 펼쳐보는 경남예술의 한마당을 상상해봅니다.

김관수 19회 수상자

동서미술상 제정 당시 출연금 전액을 송관장님께서 사재를 털어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미술상을 제정한 것이 최초의 일이었고 이를 계기로 지역 작가들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하셨지만 개인의 힘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재력이 넉넉한 분도 아니었고 이 지역 미술 애호가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화랑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미술상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생은 예술작가가 아니라 화상(畫商)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면 약간의 사례를 받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고 간혹 작가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품을 헌정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실물 가치로 전환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가들의 전시를 위한 경비도 몸소 총당하셨을 겁니다. 가난한 작가들에게 전시 경비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 경우 선생님은 자신의 인연들을 극비리에 소환하여 대신 볼멘소리로 작품 한두 점 떠안겨가며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부를 충족하기 위해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묘한 것이 아무에게나 작품을 안기는 것이 아니고 꼭 그 작품에 어울리는 대상을 연결하셨습니다. 그만큼 작품이나 사람을 대하는 안목이 깊고 섬세했습니다.

저는 사진작가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동서미술상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흐(Vincent van Gogh)에게 동생 테오(Theo)가 있었기에 예술혼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지역 작가들에게 테오의 역할을 자처하셨던 분이 관장님이셨고 그 유지를 받들어 동서미술상의 의미를 계승시키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이 저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0주년을 이룬 동서미술상은 이제 개인이 제정한 상의 영역을 벗어나 경남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위상을 굳히는 데 있어서도 주요 사업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가치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동서미술상이 주춧돌이 되어 이 지역 문화예술의 역사를 이어가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기에 저는 이 일에 열심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조성제 22회 수상자



1 ____ 조성제 동서미술상운영위원장(23회 수상자)

3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의 형성을 아우르는 기간이다.

동서미술상 제정 30년이라는 시간은 경상남도의 문화영역에 한 세대를 넘긴 역사성을 구축했다. 무릇 문화라 함은 시대공감이자 교감의 역사다. 계승·유지·발전의 단계를 경험하며 이루어지는 창조의 작업이다.

과거 없이 이루어지는 미래는 없다.

지난 30년을 경험하며 이 지역 미술인의 거울로 자리매김한 동서미술상이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차세대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의 번뇌와 사악을 없앤다는 북, 독고(毒鼓) 멋쟁이 할배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북소리 되고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지혜의 가리킴이 빨간 장갑을 낀 할배의 손끝에 머무른다.

삶은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다. —————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공간이 변하고 다양성의 날개 달고

공연장이 변하고 있다. 한 공간에서 하나의 예술 장르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극장, 오늘은 전시장, 내일은 콘서트홀로 자유롭게 옷을 갈아입는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공간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즐길 수도 있다. 우리는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이라 부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공간. 문화예술에 있어 공간이란 창작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자 창작의 결과물이 관객과 만나는 곳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펼쳐지는 복합문화공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은 쓰임새를 한정짓지 않는다.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확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다. 예술이 장르를 넘나들며 발전했듯이, 공간 역시 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지역 곳곳에도 복합문화공간이 문을 열면서 관객들에게 예술이 주는 즐거움을 아낌없이 전하고 있다. 이제 관객들은 멀리 찾아가지 않고도 다양한 무대를 만나고,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도로 관객에게 색다른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데 어울려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놀이터'다.

극단이 염원하고 시민이 응원한 공간 예술중심 현장

진주 동성동에서 오랫동안 터를 지켜오던 3층 건물이 희망의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처음에는 영화관이었고 얼마 전까지는 극단 현장의 공연장이 세 들어 있던 이곳이 지금은 복합문화공간 '예술중심 현장'으로 재탄생했다. 예술중심 현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개관식을 갖고 진주지역 새로운 문화 플랫폼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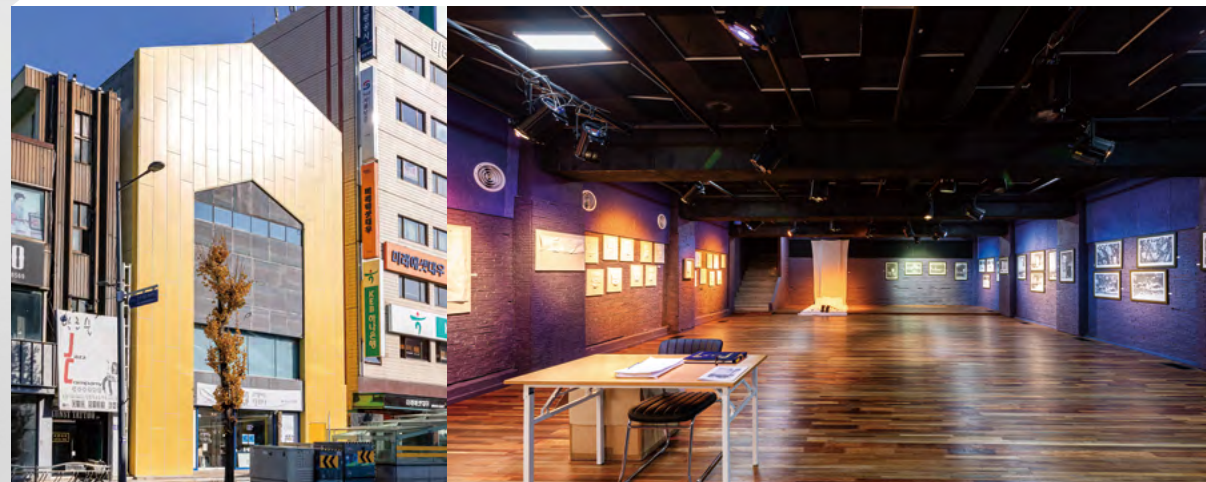
극단 현장은 지난 1974년 창단공연 <출발>을 시작으로 올해로 47년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좋은 공연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고, 경남을 대표해 전국 무대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며 경남 연극의 성장에도 앞장서 왔다.

그러던 중 현장아트홀이 있던 건물이 매물로 나오자 극단 현장은 주택보증공사 도시재생기금상품 용자를 활용해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극단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에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보탰다. 만 원짜리 파란색 만 장을 모으겠다는 의미의 '파란만장' 캠페인과 백만 원을 출자해 줄 많은 사람을 모으겠다는 의미의 '백만대군'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국의 연극인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무사히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말 예술중심 현장이 우뚝 세워질 수 있었다. 예술중심 현장은 극단 현장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시민과 예술인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모두가 어우러지는 예술의 중심

예술중심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뤄져 있다. 로비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현장에이라운드(A-Round)를 만나는데, 이곳은 전시실과 카페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 후 파티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형태의 공연문화를 시도해 보기에 좋은 공간이다. 지하는 현장아지트(Azit)다. 이곳에서는 지역의 인디밴드 공연이나 강연, 미술이나 사진 전시회 등이 가능하다. 비대면 공연을 위한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반 환경도 마련해 뒀다. 2층은 공공 협업공간인 현장아고라(Agora)다.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아고라의 의미를 재해석해, 이곳에서 공간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극단 현장 사무실과 공연조명디자인회사, 시민극단, 무용단, 진주연극협회, 경남연극협회 등이 입주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3층에는 공연장 현장아트홀(Art Hall)이 있다. 기존 현장아트홀은 환경을 개선하고 분장실과 무대조명장치 등을 추가해 더욱 풍성한 공연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했다.

계단만 오르면 전혀 다른 매력적인 공간이 펼쳐지는 예술중심 현장.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탰으니, 이제 이곳은 극단 현장만의 공간이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많은 무대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면서 예술의 미래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예술중심 현장에서는 늘 어떤 형태로든 예술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면 합니다. 전시든 공연이든 연극이든 즐기고 싶은 무대가 날마다 펼쳐질 그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의 중심, 현장으로 놀러 오세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38 / ihyunjang.com / 055-746-7411/7413



진주시 망경북길 38 / www.lucida.kr / 055-759-7165

망경동 골목길, 전시장이 되다, 루시다갤러리

진주 망경동 골목길에 자리 잡은 루시다갤러리는 이수진 관장의 오랜 꿈이 실현된 공간이다. 그는 기업인으로 살면서 사진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예술인들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직접 갤러리를 열었다. 처음에는 사진 갤러리로 시작해 지금은 조각, 회화 등 미술품을 전시하고 도서관과 카메라 박물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루시다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자유롭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카페를 가로지르면 문화예술 관련 서적이 즐비한 도서관과 필름카메라부터 디지털카메라까지 카메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메라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1층에 있는 제1전시장은 사진과 조각, 회화 등 전국의 실력 있는 작가들이 초대전과 기획전을 펼치는 곳이다. 찾아간 날에는 마침 심이성 조각가의 '생명의 축제, 그래도 봄은 온다' 전시가 펼쳐지고 있었다. 생명력 가득한 조각 작품과 함께 전시실 천장의 익숙한 타일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이 공간은 옛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망경동의 역사를 그대로 품은 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장 타일과 외부의 목욕탕 굴뚝도 그대로 남겨 두었다. 2층에는 제2전시장과 작가들의 작업실이 있고 옥상에는 카메라 옵스큐라 체험실이 마련돼 있어 특별한 체험을 즐길 수도 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쪽 벽면에 외부의 풍경이 거꾸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기계장치로 만든 것이다.

작은 골목에서 만난 삶 그리고 예술

루시다갤러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건물 밖 골목길에서부터 야외전시장인 미로갤러리가 시작된다. 골목을 걷는 내내 망경동의 어제와 오늘이 투영된 사진을 보면서 이곳의 역사를 모두 읽어낼 수 있었다. 골목을 걸으며 예술작품을 만나는 야외 갤러리를 통해 이수진 관장은 망경동 골목길을 예술의 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오랜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모습이거든요. 루시다갤러리와 망경동 골목 곳곳에서 우리 삶과 가까이 있는 예술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목적 없고 불친절한, 하지만 불가능은 없는 코워킹스페이스PLP

코워킹스페이스PLP는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가 자유롭게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문을 연 복합공유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코워킹스페이스란 이름이 말해주듯 공간으로 들어서면 무대와 녹음실, 독립출판, 서점 등 다양한 분야가 ‘공유’되고 있었다. PLP는 Point, Line, Plane의 약자로 한 사람이 점이 되고, 점이 모여 선을 이루며, 선이 모여 면이 되는 것처럼 문화예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워킹스페이스PLP는 ‘목적’이 없는 공간이다. 장원재 대표는 공간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라는 질문을 받기보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왔는가’를 묻는다.

정해진 목적이 없기 때문에 불친절하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문화, 예술, 기술, 인문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함께 모여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는다. 각자 전문 분야를 고집하기보다는 협업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등 ‘시너지’를 강조했던 공간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유와 공존의 새로운 문화 플랫폼

장원재 대표는 지난 2019년 4월 공간을 만들면서 10일 동안 10가지 콘셉트로 오픈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공간의 정체성에 맞춰 여러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해 보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란 기대를 품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경남메세나협회 지원을 받아 문화살롱PLP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하면 다양한 라이브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공간을 거점으로 시작한 청년그룹인 김해젊은 아티스트 네트워크플랫폼 GAP과 함께 진행한 가상 전시 공간 ‘온라인PLP’가 전국에서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엿봤다. “PLP가 지역에서 참 고마운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공존’을 고민하며 지역의 가치를 올리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해시 평전로 194 2층 / 인스타그램 @spaceplp / 055-723-2284

Mecenat News

2020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경남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0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만났다.

경남메세나협회는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내 고장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콘서트는 창원(2018), 진주(2019)에 이어 당초 김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비대면 무관중 공연으로 전환되었다.

콘서트의 첫 문은 젊은 거장 작곡가 조우성의 작품 'Questions are the Answer'가 열었다. 타악기가 가진 다양한 배음의 잠재력에 집중한 이 곡은 한 번도 겪어보진 못한 세상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어 비올리스트 김은진이 무대에 올라 오스트리아 작곡가 J. N. 훔멜의 '비올라와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Op. 94'을 경남메세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했다. 비올리스트 김은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올라 소리로 가을밤의 서정을 빚어냈다.

2부에서는 뮤지컬배우 박소연과 이진명이 출연해 풍성함을 더했다.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두 배우는 뮤지컬 그날들 중 '사랑했지만', 모차르트 중 '황금별'과 애니메이션 알라딘 삽입곡 'A Whole New World' 등을 열창하며 따로 또 같이 매력을 발산했다.

비대면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된 이 공연실황은 LG헬로비전 경남/가야방송을 통해 중계되었으며 Youtube 경남메세나협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되었다. 협회 관계자는 관객들을 모시고 공연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2020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공연장 너머의 더 많은 도민들에게 닿게 되어 의미 있다면서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콘텐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콘서트를 즐긴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대신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클래식과 뮤지컬,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경남메세나 특유의 기획이 돋보이는 무대였다고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문화예술이 필요한 시간, 영상을 통해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편, 이 공연은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Mecenat
News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2020 경남메세나대회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남의 메세나인들이 모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든든히 예술지원에 매진해온 기업과 개인 그리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예술단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응원이 쏟아졌다.

지난 12월 3일 창원 리베라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20 경남메세나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수상자만 참석하는 최소 규모로 치러졌다.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대기업 22개, 중소기업149개 등 기업과 예술단체 171개 팀이 결연을 맺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메세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기에 2020 경남메세나대회의 의미는 더욱 깊었다.

황윤철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기업과 예술이 만나 함께 피워낸 문화예술의 꽃이 회복과 치유의 힘을 발휘하며 지역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였다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남메세나는 ‘with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술의 발전, 기업의 성공 그리고 경남의 미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문화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경남메세나협회 회원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5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 1명의 개인 그리고 2명의 예술영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졌던 머물러 교환 퍼포먼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하여 생략되었지만 결연 기업과 예술단체 동행의 명단을 담은 대형 현수막이 대신 자리해 그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2명의 예술영재들의 공연 그리고 실력파 크로스오버 중창단 ‘팬텀보체’의 축하공연까지 더해져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시상식 및 공연은 영상으로 촬영되어 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경남메세나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대 상



활발한 메세나 활동으로
지역 문화를 꽃피우다

신화철강(주) 대표이사 정현숙

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경남을 함께 꿈꾸며

신화철강은 지난 2009년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했다. 2010년부터는 이사사(社)로서 더 큰 힘을 보태고 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화철강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경남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11년째, <산청시우회>와 7년째 그리고 <극단나비>와 7년째 매칭펀드 결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현숙 대표는 2011년부터 경남오페라단 운영이사로 참여하고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경남도립미술관 운영위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올 7월에는 지역민을 위한 ‘달빛 옥상 힐링 음악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예술로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화철강은 지역의 예술인 지원 활동과 문화 보급에 힘쓰며 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경남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신화철강의 풍경

매년 연말이 되면 신화철강 임직원들은 소극장을 찾는다. 회사가 후원하는 <극단나비>의 공연을 보며 문화송년회를 즐기기 위함이다.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단막극을 펼치며 문화예술을 체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을 경영과 직원 복지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은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향하는 경남 메세나 기업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메세나인상



문화예술의 힘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다

이동기 청호환경산업(주) 대표이사

의령을 사랑하는 남자

의령에서는 이동기 대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그가 마음을 쓰지 않은 곳이 없다. 의령을 위한 일에 언제나 발 벗고 나서고 소외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그는 매년 추석이면 의령군민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노래자랑을 열고 의령군민을 위한 볼링대회를 열기도 한다. 반찬 봉사과 돌보미 봉사, 김장 봉사까지 지역 봉사와 나눔의 현장에 그가 빠지면 섭섭할 정도다.

의령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동반자, <노리마당>과의 만남

이동기 대표이사는 기업과 지역사회는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늘 말한다. 그는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문화예술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연회패 <노리마당>과의 만남은 의령 문화발전의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이동기 대표와 <노리마당>은 함께 의령 문화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진심을 담은 그의 지원 덕분에 <노리마당>의 무대는 더욱 풍성해졌고 단단해졌다. 의령군민들에게 대도시 부럽지 않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여겠다는 서로의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에는 어느덧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하다.

문화경영상

(주)조흥저축은행
대표이사 박 혁

대상 시상식

의 만남 결연식



오늘도 내일도 '예향' 통영의 명맥이 이어지도록

‘예향’ 통영의 명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에는 통영의 메디치, 조흥저축은행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었다. 조흥저축은행은 국내에 아직 ‘메세나’라는 단어가 소개되기 전부터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메세나 기업 활동에 힘써왔다. 50년 전부터 전국학생 예능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수많은 예술 꿈나무들을 발굴해냈으며 최근에는 예술가를 꿈꾸는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60억 원 규모의 예술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예술로 더 아름다운 ‘통영’을 그리며

예술로 더 아름다운 통영을 가꾸는 지역 예술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자 조흥저축은행은 ‘통영예술상’을 제정하고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여 창작지원금을 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통영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7억 원가량의 건물을 기증하여 통영예총회관 건립에 도움을 주었다. 현재 이곳은 통영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강좌 및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 문화 발전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러한 조흥저축은행의 지원에 힘입어 통영 예술인들은 열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덕분에 예술인들의 공연과 전시 활동이 풍성해지면서 통영의 예술 저변이 확장되고, 일반 시민들의 삶 속에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Arts&Business상

(주)참신한건설 대표이사 박범주
& 극단현장 대표 고능석



기획하는 건축가, 연극 무대에 힘을 보태다

참신한건설 박범주 대표는 건축가이면서 문화기획자, 동시에 무대 디자이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극단현장의 무대 디자인을 도맡아 극단현장 고능석 대표와 예술과 철학을 공유하며 지금까지 인연을 쌓아왔다. 따로 또 같이 길을 걸어오던 참신한건설과 극단현장은 지난 2016년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 사업으로 의기투합했다. 두 단체가 힘을 모으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졌다.

매칭펀드 날개 달고 전국 무대로 날아오른 ‘극단현장’

결연의 가장 큰 성과는 보다 많은 진주 시민들에게 연극의 묘미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로 공연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극단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모여 극단현장은 ‘2020 경남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단체 금상(문화체육부 장관상)과 신인연기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함께 걸어 더욱 벅차고 의미 있는 이 길을 참신한건설과 극단현장은 앞으로도 함께 걸을 예정이다. 참신한건설은 향후 회사가 맡게 될 모든 공공 입찰공사 금액의 1%를 극단현장에 기부하기로 협약을 맺기도 했다. 참신한건설 박범주 대표와 극단현장 고능석 대표는 문화예술이 스미지 않은 공간은 색을 잃게 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앞으로 이 아름다운 동행이 어떤 색으로 이 도시를 다채롭게 물들여갈지 무척 기대된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선택, 문화와 예술

1997년 설립된 경남개발공사는 살기 좋은 경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경남의 미래가치를 높이하고자 고민하던 중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간 개선뿐 아니라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남이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살고 싶은 공간,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도시를 따뜻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예술이 필요함을 느꼈다.

경남예총과의 의미 있는 동행

경남개발공사는 경남의 예술계를 대표하는 경남예총과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지금까지 6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든든한 지원에 힘을 얻은 경남예총은 도내 예술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더욱 원활히 하고 예술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매년 경남 예술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어 예술인들의 성장을 견인했다. 덕분에 예술인들은 더 많이 보고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경남 문화예술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술인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문화 다양성도 풍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주거공간만큼이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메세나 활동을 시작한 경남개발공사, 비포장 토지를 닦아 그 위에 튼튼한 집을 짓듯 지역 예술인들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화공헌상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



“성실함으로 쌓아올린 재능이라는 탑”

신호연 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교내 관악단에 입단하여 취미로 트럼펫을 시작했다. 관악단을 지도하던 선생님은 신호연 학생의 재능을 알아채고 그를 음악가의 길로 이끌었다. 하루하루 성실하고 꾸준하게 연습에 매진하며 실력을 키워나간 결과, 그의 음악적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전국 단위의 콩쿠르를 석권하며 꿈을 키워나갔고, 2019년에는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에 합격하여 지난 11월 14일 꿈의 무대에서 데뷔하였다. 그의 연주가 뛰어난 이유는 그 무엇보다 음악을 대하는 순수성에 있다. 음악을 그 자체로 즐기면서 성장해나가는 신호연 학생의 모습은 많은 예술 꿈나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천재성에 노력을 더하다”

김동환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남행복오케스트라에 입단하면서 처음 트롬본을 손에 쥐었다. 타고난 감각으로 안정적인 소리를 냈고 누구보다 빠르게 테크닉을 습득하여 연주에 적용하였다. 곡 해석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와 균형 맞추는 센스까지 두루 갖추어 독주와 합주실력 모두 갖춘 뛰어난 연주자로 성장하고 있는 그는 2018년 현대자동차 정몽구 재단 문화예술영재로, 다음 해에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했다. 김동환 학생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겸손한 자세로 기초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경남관악의 미래를 밝힐 인재, 김동환 학생의 내일을 응원한다.

신호연 김동환 학생에게는 BNK 경남은행의 후원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문화예술영재상

신호연 밀양중 3학년 (트럼펫)
김동환 해운중 3학년 (트롬본)

대상 시상식

만남 결연식



경남메세나협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재인증

지난 10월 28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20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식에서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재인증 받았다. BNK경남은행과 (주)무학은 도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 인증패가 전달되었다.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예술후원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일구어 낸 단체 및 기업 등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경남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후원 매개와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후원 인식 확산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2018년도에 재인증을 받는데 이어 올해 2017-2019년도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경남 대표 향토기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이날 인증식에는 경남 대표 향토기업인 BNK경남은행과 (주)무학이 함께해 더욱 의미 있었다.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올해 경남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BNK경남은행과 (주)무학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BNK경남은행은 문화예술 후원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장사로서 협회의 창단과 운영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BNK경남은행은 1990년부터 해마다 여성백일장과 어린이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창작활동과 어린이의 재능개발을 지원하고 BNK경남은행 갤러리를 운영하여 문화예술 인프라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무학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를 비롯 경남미술협회, 마산미술협회, 경남국제아트페어 등 지역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인사동 경남갤러리에서 열린 '경남미술의 향기展'에 5,000만 원을 후원하고 문화예술로 지친 지역민들을 위로하고자 창원 봉암수원지에 숲속 갤러리를 조성하기도 했다.

함께 키워나가는 예술나무

이날 인증식의 문을 연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뜻을 모아 문화예술 후원에 참여하는 기업과 후원을 매개하고 있는 단체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한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고 후원에 앞장서 주신 기업과 기관에 존경을 인증패에 담아 전한다면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CONNECT BTS 프로젝트를 선보여 코로나 시대 예술을 통한 포용과 연결 가능성을 제시한 이대형 에이치존 대표가 특별강연과 퓨전국악밴드 AUX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이 공연에는 국내 최초 장애인&비장애 통합 오케스트라인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와 협업하는 무대를 선보여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올해 14개의 기업·기관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문화예술후원기관 인증은 향후 3년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 동안 우수기관 인증 마크 활용, 후원 활동에 대한 홍보,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 ____ (좌)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우)경남메세나협회 강신철 전무
2 ____ (좌)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 (우)BNK경남은행 여창현 상무
3 ____ (좌)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 (우)최낙준 (주)무학 사장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el. 02) 760-4787 E-mail. artm@arko.or.kr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 문화나눔사업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사업이 올해도 경남 도내 곳곳에서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도민들의 삶에 문화예술로 위로를 전했다.

1. 김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한 연극 <오백에 삼십>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김해 소재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들은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로 짧은 피서를 떠났다. 대학로 화제의 코믹 연극 <오백에 삼십> 관람은 덤이었다.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코믹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서스펜스를 더해 호평을 받고 있는 이 공연에 초대된 김해 지역 청소년들은 잠시나마 학업의 스트레스와 더위도 잊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 나에게 띄우는 편지, <뮤지컬 러브레터>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손준호가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창원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3·15아트센터 대극장을 찾았다. 이 공연은 당초 9월로 예정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11월로 순연되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이 공연에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와 은성 지역아동센터 소속 청소년 30명을 이 공연에 초대했다. 유례없는 전염병 유행으로 문화생활은 물론 학교 수업에서도 음악을 즐기기 어려웠던 학생들은 공연을 통해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면서 사랑과 감동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곡들이 마치 관객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처럼 느껴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1. 오실 수 없다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찾아가는 갤러리>

줄줄이 취소되는 공연과 전시 소식에 아쉬움이 컸을 도민들을 위해 경남메세나협회가 지역 예술인들과 손을 잡고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다가갔다. 우리 지역 유망 미술작가들로 구성된 경남영아티스트작가회는 마산사회종합복지관 건물 내부 곳곳에 작품을 설치하여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했다. 창녕미술협회는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창녕장애인종합복지관 복도를 따라 소속 작가들의 소품을 전시해 지역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이라는 작은 위로를 선물했다.

2. 온(溫)택트 나눔, 온(ON)택트 콘서트

비대면 문화예술 나눔 사업도 이어졌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 우수 공연예술 단체들과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다. 협회와 예술단체들은 공연을 취소하는 대신, 영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벨라미치예술단은 오페라 ‘라보엠’ 공연을 경남첼버쏘사이어티는 실내악과 성악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트로트 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였다. 경남메세나협회와 예술단체가 공연에 담은 따뜻한 마음이 화면 너머의 관객들에게 전해졌길 바란다.

즐거운 나눔티켓



즐거운 나눔공연



2021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Matching-Grant



<2021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과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를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2021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신청 안내

신청접수

1차 접수 | 2021년 2월

2차 접수 | 2021년 7월 중

※ 1차 접수에서 매칭펀드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
2차 접수는 받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 대학교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천목단체 성격의 조직 제외)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예술단체

경남도내 소재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결연형태

1 : 1 결연 | 1개의 기업이 1개 예술단체 지원

1 : 多 결연 | 1개의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多 : 1 결연 | 다수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제출서류

기 업 |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 지원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는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심사기준

기 업 |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지원 가능 여부 등

예술단체 | 신청 사업 추진 계획, 과거 활동실적, 기업 교류협력 활동 계획 등

지원금액

기업후원금과 펀드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펀드지원금의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접 수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문 의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055)285-5611~2

게이츠헤드, 예술로 도시를 살리다

폐광 마을에서 캐낸 예술이라는 보석

18세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의 선진 공업도시들은 20세기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게이츠헤드와 바로 옆 뉴카슬은 한때 영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이 생산되던 곳이었지만, 탈공업화에 따라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늘어났으며 흉물스러운 폐공장만이 과거의 영광을 증명할 뿐이었다.

무너진 공업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예술이었다. 게이츠헤드는 무너진 석탄 더미에서 예술이란 보석을 캐냈다. 산업화의 영광과 탈공업화의 아픔 위에 예술로 웃을 입힌 게이츠헤드에서 우리는 예술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다.

게이츠헤드는 영국 잉글랜드 북부 타인 위어주에 있는 소도시로 타인강을 사이에 두고 뉴카슬과 맞닿아 있다. 두 도시는 한때 공업도시로 이름을 날렸지만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큰 도시인 뉴카슬 시는 정부 사업을 따내며 도시재생을 활발하게 시작했지만, 게이츠헤드는 이렇다 할 사업을 따내지 못한 채 점점 침체되어 갔다.

공공공간 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

1986년 게이츠헤드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이자 전환점을 맞게 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다. ‘공공공간 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업은 게이츠헤드의 산업유산과 역사성을 활용해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도시 곳곳에 선보임으로써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보수하고 그 주변에 예술작품을 하나둘 설치하기 시작했다. 또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도시가 조금씩 예술의 향기로 물들 즈음인 1990년, 게이츠헤드에서 가든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많은 관광객들이 게이츠헤드를 찾아와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도시 곳곳에 세워진 예술작품을 감상했다. 이 축제를 계기로 게이츠헤드는 ‘문화예술도시’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주었고, 지역민들에게는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탈공업화 그리고 예술도시의 상징 [북쪽의 천사, 밀레니엄 브리지]

오늘날 게이츠헤드의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북쪽의 천사(Angel of the North)는 1994년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고펜에 의해 지어졌다. 이 작품은 지하와 지상 높이 총 40m, 폭 54m로 영국 최대 크기의 조소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각은 공업화의 주역이었던 철을 이용해 과거 석탄 갱도가 있던 곳에 세워져 역사적 의미와 예술성을 모두 담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작품의 규모만큼이나 비용도 많이 들어 갔는데, 작품이 세워질 당시 시민의 80%가 재정적인 이유로 조각상 건립을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는 예술로 도시를 살려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시민의 80%가 만족한다고 답하며 반전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밀레니엄 브리지는 지난 2001년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로 뉴카슬과 게이츠헤드를 잇는 다리다. 도보나 자전거로만 이동할 수 있고 배가 지나갈 때면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마치 윙크를 하는 듯 독특한 디자인으로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역시 게이츠헤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폐공간에 예술을 불어넣다 [발틱 현대예술관, 세이즈 게이츠헤드 음악당]

게이츠헤드 타인 강변에는 1950년에 방앗간으로 건축돼 한때 약 300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던 발틱 밀 저장용 창고 건물이 남아 있었다. 게이츠헤드는 방치된 밀가루 창고를 개조해 발틱 현대예술관을 만들었다. 3층이었던 건물을 개조해 6층으로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다양한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2년 첫 전시를 연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전시 및 교육을 펼쳐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부흥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활용한 발틱 현대예술관은 지역민에게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공간으로, 관광객에게는 역사와 예술의 향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타인 강변에 방치된 공업 용지에 세이즈 게이츠헤드 음악당이 건립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세 개의 공연장이 철과 유리로 된 지붕으로 덮여 있어 독특한 외관을 연출한다. 이 건물 안에 26개의 연습실과 워크숍 공간 등이 있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곳은 늘 좋은 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이자 지역민들이 만나 취미를 함께 즐기는 지역 커뮤니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역민이 행복한 도시재생

게이츠헤드가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대표 사례가 된 것은 이런 상징적 공간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즐기는 환경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공간을 먼저 짓고 나서 공간의 필요를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 공간을 지어 지역 커뮤니티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것이다. 이런 도시재생은 관광객이나 주변 도시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곳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살리고자 할 때 하드웨어를 바꾸는 소프트웨어의 힘, 공간의 필요를 바꾸는 예술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을 즐기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공간을 채우는 것이 다름 아닌 ‘예술’이라면 더없이 좋겠다.

경남메세나 예술영재가 만난 세계

독일 문학이 음악사에 미친 영향

경남메세나협회에서는 매년 문화예술영재를 선정해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때의 영재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지난 2015년, 목관악기 ‘바순’으로 문화예술영재에 선정됐던 이채원 학생이 멀리 독일에서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수석 입학 후 도독해 현재 함부르크 국립음대에 재학 중이다. 음악의 본고장 독일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경남의 문화예술인과 나누고 싶다는 이채원 학생. 그는 독일에서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해왔다. 그와 함께 독일 문학이 음악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세계 문화예술계에 많은 족적을 남긴 독일은 문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복합적으로 발전해 온 예술의 나라다. 2015 경남메세나 예술영재 이채원 학생은 독일 유학을 통해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독일 문학이 세계 음악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예술’을 한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ART의 어원은 라틴어 Ars로부터 유래했으며 예술이라는 의미 외에도 기술, 방법, 지식 등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듯 예술은 한 가지 학문이 아니라 음악, 미술, 건축, 무용, 문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이 집합된 형태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상관없는 다른 학문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이 같은 예술 장르들은 각각 다른 전공으로 구분돼 있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예술의 여러 분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한다.

“독일은 예술에서 세계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라 할 수 있어요. 괴테, 하이네, 실러 같은 당대의 저명한 문학가를 배출해 냈고 음악의 아버지 바흐, 악성 베토벤, 가곡의 왕 슈베르트 등 음악 분야에 있어서도 엄청난 인물들이 탄생했죠. 이런 나라에서 문학과 음악의 거장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음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화성과 선율로 이야기를 전하고, 문학은 단어와 문장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음악으로 재탄생한 괴테의 <파우스트>

완전히 다를 것 같은 문학과 음악, 이 두 분야는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문학작품이 어떤 음악에 영향을 미쳤을까? 대표적으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파우스트>를 꼽을 수 있다.

“괴테는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공직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설인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를 모티브로 쓴 소설 <파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죠. 이 작품에 감명을 받고 자신만의 색깔로 곡을 입힌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파우스트>로 곡을 입힌 작품에는 슈베르트의 가곡 ‘실을 찾는 그레트헨 D.118’, 로베르트 슈만의 오라토리오 ‘괴테의 파우스트로부터의 장면’,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집별’,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보이토의 오페라 ‘메피스토펠레’, 무소륵스키의 가곡 ‘벼룩의 노래’, 말리의 ‘교향곡 8번의 제2부’, 부소니의 오페라 ‘파우스트 박사’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이 샤를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 계몽주의의 한계, 순수예술의 한계를 전하고자 했지만, 샤를 구노의 오페라에는 등장인물이 ‘마르게리테’로 바뀌어 그의 비극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르다. 동일 주제에 대한 방향성과 아이디어는 다를지 몰라도 이 작품 역시 괴테의 <파우스트> 못지않은 또 다른 대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작품은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이다. 이 곡은 총 3악장으로 이뤄져 있는데, 각 악장의 제목이 파우스트의 등장인물로 구성돼 있다. 소설의 감동을 선율로 옮겨 다양한 악기의 연주와 리스트 특유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만으로 관객들에게 소설과 같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대작이 아닐 수 없다.

“원작,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작품들이 어떤 것이 더 작품성이 높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죠. 모티브는 같지만 두 작품은 완전히 다른 작품인걸요. 하지만 작품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또 다른 작품으로 파생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음악가의 ‘뮤즈’가 되어준 독일 문학

이밖에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괴테의 시 <마왕>을 모티브로 가곡을 작곡했고, 리스트는 <파우스트>에서 악마로 등장하는 ‘메피스토펠레’를 제목으로 피아노를 위한 곡을 작곡하기도 했다. 괴테의 <에그몬트>는 베토벤에 의해 서곡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괴테는 자신이 의도하지 못한 순간에도 많은 독일 음악인들에게 ‘뮤즈’가 되어 주었다.



“괴테의 작품뿐 아니라 많은 문학작품이 음악에 영향을 미쳤어요.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의 가사는 실러의 <환희의 송가>에서 영향을 받았고,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하이네의 시 <서정적 간주곡>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예술이 협업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다. 특히 젊은 신예 예술가들이 교류를 통해 관객들에게 조금 더 흥미로운 음악을 전달하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음악가들이 꼭 음악에서만 영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문학가들이 문학에서만 영감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학도, 음악도, 미술도, 무용도 모두 서로의 뮤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술가로서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뮤즈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역경의
시대를
살아온
아름다운
연극인들

연극 도시의 연극인들

2021.02.18(THU)~02.28(SUN)

성산아트홀 소극장 | 무료 (전 좌석 사전예약) | 8세 이상 관람가

총괄프로듀서 강제규

박정철 · 이칸희 · 길은혜 · 지찬 · 김민경 · 정상훈 · 안두호

윤대성 · 오문강 · 이성재 · 이슬기 · 조산기 · 류성진 · 오테호 · 김준호 · 이현아 · 허지훈 · 김희수 · 안지아 · 남은주 · 김민성 · 박솔지 · 권인화 · 김예은
주최/주관 (재)창원문화재단 | 책임프로듀서 김수로 | 원작 허정도 | 각색 성종완 | 연출 정범철 | 문의 055-268-7900 www.cwcf.or.kr



인생 꽃같은 팔도유람

2021 2.20(토) 5:00PM
3·15아트센터 대극장

두번재달 x 채수현 | 악단광칠 ADG7 | THE 광대



R석 3만원 S석 2만원

시민누구나 힘내라창원! 할인 055)719-7800

U n i v e r s a l B a l l e t



유니버설발레단

도키호테

Don Quixote

2021. 4. 16.(금) 19:30, 4. 17.(토) 15:00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문의 1544-6711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Principal dancer Misun Kang
© Universal Ballet Photo by Jeonhyun Kim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21

TIMF



통영국제음악제

CHANGING REALITY
2021.3.26~4.4

timf.org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무학

(주)센트랄

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리지

이사사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창원대학교 음악과

(주)리베라관광개발

범한산업(주)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주)지엔티

한국민예총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주)

감사사

(주)정일

청호산업(유)

회원사

가야IBS(주)

(주)강민종합건설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거제컨벤션웨딩뷔페

경남개발공사

경남스틸(주)

경남신문사

경남오페라단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구려

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치과병원

광득종합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앰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강종합건설

(주)금슬개발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남명산업개발(주)

남양매직(주)

늘푸른 요양병원

당당한방병원 김해점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주)대동주택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대한전선전기(주)

(주)대호테크

the큰병원

(주)덕광중공업

(주)동구기업

동양특수금속(주)

(주)동오프랜지

(주)동은화학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엠(주)

디케이리악(주)

라온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보림건설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북성산업

(주)사릭

사보이호텔

(주)산호수출포장

(주)삼보산업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삼원테크(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유)상화도장개발

서병원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호테크

승진기계(주)

시영건설(주)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

(주)신한물산

(주)씨노텍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주)엔지피

영광산업 주식회사

(주)영남엘피씨

(주)영신화공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주)예술상점

예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ONE

(주)옥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원한의원

(주)웰템

유림건설(주)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년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이레개발(주)

(주)이엔티

(주)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장한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트

(주)좋은콘서트

주용테크

중양건설(주)

(주)중앙금속

(주)지에스비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아의료재단

초심공업(주)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쿠쿠홍시스(주)

태광실업(주)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주)포스텍

푸주옥

피케이밸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반도

(주)한창테크

(주)해동설계종합건축사

해성메탈(주)

해수종합건설(주)

현대공업(주)

(주)현대기업

(주)해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주)화영

(주)화영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주)화인에이티씨

(주)환웅정공

현대로템

흥일기업(주)

STX조선해양(주)

STX엔진(주)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예술단체 워크숍_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Cooperation

찾아가는 공연_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공연, 전시를 기획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공감/문화경영도서_회원사에 우수문화공연 관람티켓 및 문화경영 도서를 보내드립니다.

지정기탁_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움 나눔티켓_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_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_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컨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홍보대사 위촉_경남메세나협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합니다. (1대 홍보대사 금난새 / 2대 홍보대사 홍지민)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_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_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_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향토기업 남명이 만드는 **울하2지구**의 가치

NsQUARE가 완성하는 울하의 품격이 UP

NsQUARE는 상가, 그 이상의 문화다!

울하 2지구에서 가장 큰 스케일, **규모가 예술**

도보로, 자동차로, 버스로, **위치가 예술**

벽탐시계, 유명작가 조형물, 옥상테마정원, **건축물이 예술**

대지위치: 경남 김해시 장유동 839-5, 839-6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울하2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1,951,200㎡ (590.24PY)
건축면적: 1,315,189㎡ (397.84PY)
연 면 적: 14,710,131㎡ (4,449.81PY)
건 폐 율: 67.40% (법정기준:80%)
용 적 율: 593.25% (법정기준:800%)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9층

주차대수: 85대(108.70%), 2Way자주식
내진능력: 건축구조설계기준(2019 KDS41)에 따른
내진능력 (MMI VII-0.239g)으로 계획됨

분양신고번호	2020-건축과-분양신고-1
분양신고필증 교부일자	2020. 9. 16
부동산신탁회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2021년 3월
준공예정

남명은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김해시청 2020-건축과 신축허가-5 2020.03.09. 허가완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839-5, 839-6번지

분양문의
055

904-5000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 CG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안내

- **창원**
 - 전시장: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055)280-8300
 - 서비스센터: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055)281-8300
 - 인증중고차: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74번길 6 (055)280-8388
- **마산**
 - 전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055)296-1004
 - 서비스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 (055)296-1002
- **진주**
 - 전시장: 진주시 남강로 875 (055)757-8118
 - 서비스센터: 진주시 강남로 257 (055)743-1006



경남자동차
Mercedes-Benz



주식
회사 **금강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96번 나길 26 TEL. 055.864.0599 FAX. 055.297.6123

코로나19로 잠시 멀어진 우리의 거리, **언택트 사회공헌활동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가 지역의 희망찬 온기가 될 때까지
BNK경남은행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언택트(Untact)사회공헌은 경남은행 임직원과 가족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입니다.
환경보호(플로깅, 비치코밍), 물품(KIT) 제작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